

기사 프린트하기

2011년 01월 14일 (금) 17:07 매일경제

하버드대법대 아시아계 첫 종신 女교수 석지영씨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와 책의 힘이 컸습니다." 30대 중반, 그것도 아시아계 여성으로 첫 하버드대 법대 종신교수로 임명된 석지영 씨(37·미국명 지니석)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자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선 것은 책을 통해 내 갈 길을 스스로 깨닫게 한 엄마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그가 13일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받았다. 상패 수여식은 1903년 첫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땅을 밟은 날을 기념해 지정된 미주 한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 DC [월러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렸다.



그는 수상 직후 6세 때 이민 와서 겪었던 외로움과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어릴 적 갑자기 바뀐 나라, 문화와 언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석 교수는 "원래 쉬지 않고 혼자서 재잘거리는 아이였지만,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말을 할 수 없었고, 또 완전히 새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방황하고 소외감을 느꼈다"며 "이 시기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이 이후 미국생활을 헤쳐나가도록 했던 힘이 됐다"고 말했다.

1979년 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뉴욕 퀸즈로 이민온 석 교수는 처음 영어 한마디 하지 못했을 때와 고등학교 때 어려운 공부를 따라갈 때를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때 어머니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신과 여동생을 동네 도서관으로 데리고 갔다는 석 교수는 "엄마로부터 책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보고 싶은 책을 찾아다니며 혼자서 은밀한 발견을 하는 즐거움을 누렸고, 자유를 추구하는 힘을 키웠던 것 같다"며 법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성장과정을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으로 돌렸다.

어머니로부터 "책을 읽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고 한 번에 10권을 읽기도 했다는 그는 "책을 읽는 게 즐겁다는 것을 어릴 적에 깨달았고, 나에게 독서는 비밀스러운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이

었다"며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라"고 권했다.

그는 한때 발레리나를 꿈꿨다. 발레 무용수인 이모(최성이 수원대 교수·전 [한국발레협회](#) 회장)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10대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발레학교(The School of American Ballet)에 다녔다. 그런데 그의 가능성을 발견한 발레학교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발레에만 전념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반대했고, 결국 그는 발레를 중도 포기했다.

그는 범죄, 가족법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저작권 분야에서 패션 디자이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성과를 올렸다. 패션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는 그가 개척한 독특한 분야다. 스탠퍼드대에 있는 친구 교수와 함께 쓴 패션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논문에는 패션 디자이너도 음악, 영화, 서적처럼 저작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구찌나 프라다 같은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어 위반하면 불법입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베끼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일반 [저작권 침해](#)와 패션 디자인의 침해가 뭐가 다른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상상력과 창의적인 영역으로 뻗어나가 다른 법학자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한국식 교육에 대해 "암기를 주로 하는 한국식 교육이 아이들에게 멀리 보면 썩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많은 것을 보고 상상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목표를 묻는 질문에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선생이 되고 싶다"며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학생들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딴 후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임명된 그는 젊은 이들에게 "자신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멘토를 만드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열쇠"라고 조언했다. 그 스스로도 같은 대학의 흑인 여교수를 자신의 멘토로 삼아 노력한 것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프린트하기

닫기